

특 집

여성적 글쓰기로서의 자서전

이덕화

국문초록

여성으로서의 삶은 가부장적 의식을 내면화, 인내와 희생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간적인 투쟁의 삶을 사느냐 이다. 인간적인 욕망을 체념한 채, 무장된 인내와 희생의 삶을 살지라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갈망과 욕망은 끊임없이 여성들의 삶을 불안과 초조 속으로 밀어 넣는다. 또 좀더 자기 확신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성이라 할 지라도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내는 블랙홀에서 정체성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여성들의 글쓰기는 조건지어진 가부장적 사회로부터의 탈출과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심리적 탐색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대상을 지배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떠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생존의 미학이다. 자전적 소설과 자서전은 생존의 미학을 보여주는 글쓰기 양식이다.

현실에서 남성들과 어머니들로부터 자신의 분리, 그것만이 여성들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길이다. 타자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길은 자신의 고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하고, 고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욕망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철저한 고발, 아니면 자기 내면의 고백을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자서전 양식의 글이 필요하다.

여성의 자서전적 글쓰기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글쓰기이다. 일기, 혹은 편지 등의 단편적

글쓰기는 자신의 내밀한 고백은 될 지언정 자신이나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서전은 자신이 살아 온 과거의 삶,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추동하는 힘, 혹은 자기의 삶에 저해되는 요인까지도 분석,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신 이야기라는 점에서 권고되어야 할 여성들의 글쓰기 양식이다.

핵심어: 자서전, 저전적 소설, 자기 정화

1. 자전적 소설과 자서전

우리나라에서의 자서전은 전문작가가 아닌 특수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대체로 쓰여지고 있다.⁹⁾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언론매체, 신문출판사에 의해서 출판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수한 이력의 인물들이 방송매체에 의해서 조명되고, 출판사에서 그 정보를 받아 그 인물들에게 자

1) 최근의 자서전 목록을 보면 대체로 여성의 자서전이 많은 것이 특색이고, 특이한 이력의 소지자, 마산 공장 직공이었다 이태리 유학 후, 대학 강단에 서게 된 프리마돈나, 이점자의 「나는 가슴이 시키는대로 살고 싶다」, 엽장수 딸로 태어나 가발공장, 골프장의 캐디 등으로 전전하다 식모살이를 위해 도미, 거기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성공,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서진규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호스티스의 삶을 자전적 에세이로 쓴 함신미의 「몸의 생」 등, 여성으로서의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력을 지닌 여성들의 자서전이 많다. 이들 자서전의 대부분이 최소한 만부 이상, 많게는 25만부 이상 판매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자들 자서전보다 여성들의 자서전이 많이 출판되고, 출판부수도 남자들 것보다 월등히 판매실적이 높다. 서진규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김성주의 「나는 왕따이고 싶다」, 일본의 호스티스, 강패 두목과 결혼, 이혼의 경력을 가진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가 된 「」이 25만부 이상의 판매실적을 보여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자아실현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고, 여성들의 자아실현이 신분 상승과 연계 될 때에야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들이 단순히 자아실현에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자신의 신분상승 욕구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자서전의 독자층은 대략적으로 중상층 이하의 여성들임을 짐작하게 된다.

서전 에세이 쓰기를 권고, 출판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지 몇몇 전문 작가나 교수 등의 자서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문출판사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자서전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각나라마다 구체적인 분석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를 보자. 프랑스에서는 작가 루소의 [고백론]을 비롯, 스탕달, 앙드레지드, 샤르트르, 모리악, 등, 많은 전문작가들에 의해서 자서전이 쓰여졌다.²⁾

일본에서는 1920년대 이후 나타난 사소설(私小說)이 소설과 자서전 양식을 통합한 양식으로 자리잡은 이후, 작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를 발화자이며 작가인 '나'를 시점인물로 작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 현대문학에서는 근대인의 일상성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통하여 자신을 자성하고 고백하는 자전 문학이 근대적 성격으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³⁾ 일본 작가들은 거의 대부분 한편 이상의 자서전 소설을 발표한 사람이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192,30년대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고리』, 『만세전』, 『삼대』는 자서전 형식은 아니지만, 고백체 형식을 빌어서 쓴 『표본실의 청개고리』에서 작가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미자각된 의식을, 『만세전』, 『삼대』를 통해서는 미자각 상태의 주체가 서서히 객관과 통합되어가는 작가의 의식의 발전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의 재건이 자신의 철저한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 김남천에 의해서 주창된 「고발문학론」을 보자. 김남천은 1930년대 카프 해체 이후 소시민적 이탈을 자성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 폭로에 의한 주체의 재건만이 카프 문학을 대체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⁴⁾ 이 때

2) 필립 르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문학과지성사, 1998).

3) 최재철, 『일본문학의 이해』(민음사, 1997.), p.140.

4) 이덕화, 『김남천 연구』(청하, 1991.), p.99.

김남천은 조직이 해체됨으로써 소시민적 개인으로 돌아가기 쉬운 지식인 각자의 자신 속에 있는 소시민성을 고발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는 힘, 제국주의를 극복하고자하는 실천 문학의 일환으로 제시한 문학론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김남천 외의 다른 작가들에게는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지 않다.

해방이후 친일 작품을 쓴 작가들의 자성이 필요한 시기에도 실지 자서전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문학행위를 반성한 작가는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최인훈의 「화두」는 자서전 형식을 빈 소설로서, 작가와 객관적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교류를 통해서 세계를 재해석하고자하는 작가의 폭넓은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오히려 자서전적 소설은 여성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근대에 대한 화두를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자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시리즈나 여성의 정체성을 가족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 오정희의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는 자서전적 형식을 빌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서전적 소설도 많지 않지만, 자서전은 더더구나 전문작가들에 의해서 시도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학사를 훑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소설의 흐름은 한 개인의 의식보다는 객관적 현실 즉 외부 사건에 대한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기에 섬세한 여성다움과 자전성이 짙은 일상생활을 담담히 그려나가는 체험문학은 우리 문학사에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작가들의 일상적 체험을 폄하, 문학사에서 비주류로 배제시키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작가의 주류를 이루어 온 남성작가들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 유교의 전통인 체면을 중시해온 남성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시시콜콜한 일상적 생활 체험은 문학의 소재거리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또 밖으로만 눈을 돌려온 남성들에게 자신의 내부로 혹은 가정 안으로 눈을 돌려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하는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작가 이

순원은 가족관계라는 일상적 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형상화, 독자들의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런 문학사적 흐름을 본다면, 자서전적 소설이 우리 문학사에서 비주류로 밀려났듯이, 자서전 역시 우리 문학사에서 발붙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어떤 이유에서 건, 자서전이 독자들의 환영을 받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출판사에서 의도적으로 기획을 한다는 것은 독자층의 두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전적 소설과 자서전은 어떻게 다른가.

자전적 소설과 자서전은 우선 저자와 주인공이 동일하나, 아니면 유사한 가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언술된 내용에서 저자와 주인공이 유사성을 갖는 허구의 텍스트는 자전적 소설로, 저자와 주인공의 언술행위가 동일할 때는 자서전의 범주에 넣는다. 두 양식 사이의 내적인 차이점은 없다.

자서전 소설이나 자서전은 자아의 표현 욕망에서 출발, 회상주체로서의 '나'가 주관적 감정이나 경험적 사건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⁵⁾ 1920년대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고리」나 나혜석의 「이혼고백서」는 일본 제국주의하의 폐쇄된 사회, 혹은 남성들의 닫힌 의식 속에서 찾을 수 없던 소통체계를 고백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소통을 시도한 글들이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체념을 통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자신 추스르기를 시도한 글이 자서전 소설이나 자서전이다.⁶⁾

자서전 소설이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허구적 현실을 상징하는 것은 고백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고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더 진실에 가까울 지 모른다. 자서전적 소설은 소설의 형식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서전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말은 자서전처럼 자신의 고백

5) 김미현, 『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신구문화사, 1996.), p.166.

6) 이덕화, 「'날뎀'의 시화」(『여성문학연구』제5호, 2001), p.155.

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 등의 사회적 문맥 안에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다. 사회적 문맥을 고려하다보니, 여성 자서전 소설은 대부분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의 한계를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⁷⁾

그러나 자서전은 형식이 가지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속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마치 한풀이를 통한 자신 비우기와 같은 심리적 카타르시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서전이 자전적 소설보다 더 여성적 정서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형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자서전의 규약』에서 말하는 자서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야기 형태
 - a) 이야기
 - b) 산문으로 되어 있을 것
2. 다루어진 주제: 한 개인의 삶, 인성의 역사
3. 작가의 상황: 저자와 화자의 동일성
4. 화자의 상황
 - a) 화자와 주인공의 동일성
 - b) 이야기가 과거 회상형으로 씌었을 것⁸⁾

위의 제시된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작품이라면 자서전이라는 것이다. 다른 양식의 글들은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회고록은 조건2번이 부족, 전기양식은 4-a, 즉 화자와 주인공의 동일성

7) 김미현은 여성 자서전적 소설뿐만 아니라 여성작가들의 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은 이상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대한 확인에 도달하는 하강결말이 많다고 했다. 김미현, 앞의 책, p.378.

8) 필립 르죈, 앞의 책, p.17.

이 부족, 사소설은 3번이 부족, 일기나 수필은 4-b가 부족, 등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서전이 하나의 이야기인 것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화자인 '나'가 이야기를 경험한 '나'를 바라보면서 거리를 유지, 자신의 체험, 혹은 인식 범위 안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삶을 과거 회상형으로 서술하는 자서전 글쓰기의 핵심은 이야기와 담론이 맺는 관계맺음을 통해 드러나는 '자아 글쓰기'이다.

자서전보다는 소설을 통하여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그 당대의, 혹은 개인의 삶의 궤적을 사회적 문맥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소설 속의 현실은 아무리 허구적 공간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과 비슷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자기만의 개인적 열망과 내면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소설은 주어진 사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맥 혹은 가족 안에서의 자기 규정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진실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 자신에 관한 성찰을 깊이 있게 탐구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자서전보다는 덜 진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설이나, 자서전이라는 글쓰기 양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이다. 자서전은 복잡성과 모호성이 부족하고 소설은 정확성이 부족하다. 두 형식의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분석,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어디에도 없는 나, 자전적 소설 오정희의 『유년의 뜰』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배반당하고도, 딸들에게는 남편만을 하늘같이 섬기라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한다. 끝없는 배반의 역사

속에서도 딸들에게 따뜻한 남편 밥이 최고라고 가르친다. 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편의 꿈을 찾는다. 그러나 남편은 꿈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 꿈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남편, 남편의 환상을 통하여서만 보여줄 수 있는 나. 현실 속에서의 나는 없다. 집 구석구석, 나의 자취만 있을 뿐 난 어디에도 없다. 집의 어느 한구석에 자리 잡은 거울 속에서 언뜻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오히려 우리는 당황할 뿐이다.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속에서도 찾으려는 나는 없다. 숨겨진 골방 속에서만, 죽은 듯 살다, 죽어 사라지는 것이다.

부네가 아이를 가진 계야, 아마 지금쯤 꽤 배가 불렀을걸. 어찌 첫눈에도 흠뻑이 아닌 것

갈더라니, 남볼래 몸뚱 후 용케도 아들이면 자식 없는 집에 업둥이로 들여보내고 멀쩡히 처녀 행세를 시키려는 속셈이지 뭐야.(중략)

그리고 그들은 부네를 잊었다. 골방의 문이 닫히는 순간, 자물쇠가 덜컥 걸리는 순간부터 부네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자물쇠는 혹시 그녀가 끌려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완강히 채워져 있었고 그녀는 공기처럼 가볍고 투명해져서 창호지 가는 울사이로 스며들어 가버린 것은 아닐까.⁹⁾

성장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오정희의 「유년의 뜰」은 자신과 일치시킬 수 없는 기생이었던 할머니와 밤마다 술 취해 오는 어머니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유년의 기록이다.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부네’를 통해서 완강한 아버지의 세계와 그 세계에 안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존재는 ‘먼 기억의 갈피짜에서 단편적인 감각으로 만 남아있는’ 자신일 뿐이다.

인용문의 윗부분은 아버지의 세계를 부정한 자에 대한 외부 시선을 객관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문장 끝부분의 〈계야〉 〈불렀을 걸〉 〈갈더라니〉

9) 오정희, 「유년의 뜰」, 「유년의 뜰」(문학과지성사, 2000.), p.21.

〈속셈이지 뭐야〉 화자의 시선이 아닌 외부 시선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네의 이야기가 부네만의 이야기가 아닌, 무수한 여성들의 이야기이고, 무수히 반복되어왔고, 반복되어질 이야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인용문의 아랫부분은 부네의 존재를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완강한 자물쇠로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하는 아버지 세계의 완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부네는 ‘창호지 가는 울사이로’ 만 스며드는 먼지 혹은 공기 같은 부유하는 존재일 뿐이다.

한밤중에 이렇게 나와 앉아 부네의 방을 바라보면, 너무 조용하기 때문일까, 낮의 일들이 꼭 꿈속의 일처럼 아주 몽롱하게 멀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밤마다 술 취해오는 어머니, 더러운 이불 속에서 쥐처럼 손가락을 빨아대는 일 따위가 한바탕의 긴 꿈만 같이 여겨졌다.¹⁰⁾

‘나’가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밤뿐이다. 부네의 방, 그 너머에 있는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의 불안 안겨준다. 그래서 낮의 현실은 꿈속처럼 몽롱해진다. 낮의 현실 속에는 내가 없기 때문이다. 잠 속이나 꿈속에서만 만나는 ‘나’는, 알 수 없는 서러움에 언제나 소리 없이 울고 있다. 혀를 물고 자살한 ‘부네’의 죽음이 ‘나’에게 ‘소나무 속살의 희디흰 향기’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은 ‘부네’의 죽음이 바로 또 다른 ‘나’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의 불안은 아버지 세계의 완강함에서 온다. **고등학교** 자격 시험 준비를 한다는 오빠의 영어책 읽는 소리가 방안에 가득차듯. 아버지의 부제 속에서도 아버지의 존재는 ‘망령처럼 성큼 벽 틈으로 스며 당당히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드러눕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완강한** 힘이다. 아버지가 지배하는 세계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아버지 세계에 대한 따뜻한 기억

10) 오정희, 위의 책, p.47.

은 '나' 자신에 대한 혼란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부재가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나'는 아버지 세계에 길들여져 있고, 아버지를 대신할 또 다른 폭군인 오빠가 아버지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사천왕처럼 언니와 '나'를 감시하는 오빠는 한없이 커 보였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오빠가 단속을 해도 언니의 외출을 막을 수 없듯이 자신 또한 오빠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된다. 존재의 혼란을 상징하는 '노랑눈'으로 지칭되는 '나'의 심리적 헛헛함은 매일 밤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음식을 훔쳐먹고, 세상을 훔쳐보는 버릇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나'는 자신 속의 의식의 흐름에 더 예민하다.

가족의 누구와도 심리적 친밀감을 드러내지 않는 '나'는 가족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 돌아 올 아버지는 가족에게 벽찬 기대임과 동시에 공포임을. 가족 속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지배하는 보이지 않은 힘, 특히 어머니에게 가해질 폭력을 두려움으로 기다린다.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나'의 심리적 배경은 두려움과 아버지 없음에서 오는 서러움, 그리고 또 다른 존재에 대한 불안 등 혼란 그 자체였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의 케이크를 꺼내 베어 물었다. 그것을 다 먹고 냇을 때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구역구역 토해냈다. 단 케이크는 한 없이 한없이 목을 타고 넘어왔다. 까닭 모를 서러움으로 눈물이 자꾸자꾸 흘러내렸다.

나는 다리 사이에서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하며 똥통 속을 들여다 보았다.

어두운 똥통 속으로 어디선가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고 눈물이 어러 어롱어롱 퍼져 보이는 눈길에 부영계 꿰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꿰어오르고 있었다.¹¹⁾

11) 오정희, 위의 책, p.65.

가족과의 객관적 거리를 통해 가족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간파하고 있는 화자는 아이들을 헤집고 반가움에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언니와는 달리 마음이 혼란스럽다.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의 안녕을 방해하고, 그것은 화자에게 심리적 공허와 서러움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버지의 등장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심리적 공허로 인해 어제 나의 버릇처럼 몰래 훔쳐먹은 케익을 꾸역꾸역 토해냄으로써, 아버지의 등장으로 새롭게 맞게 될 질서를 혼란으로 받아들인다. 그 혼란은 비릇 뚱뚱으로 인식되지만, 또한 한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유년의 뜰」에서 보여주는 화자의 혼란은 할머니, 어머니, 언니에게조차 동일시를 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이면서, 또 가족관계에서 오는 혼란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받아들임은 어머니의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경제적 결핍을 매우기 위해 그 동안의 술집 작부로서의 행위는 아버지 세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가족의 혼란은 바로 자신의 혼란이다.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내면적 성찰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나’의 자신에 대한 혼란의 거듭, 그로 인한 불안과 심리적 공허함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가족을 통해서 ‘나’를 인식할 때 아버지 세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세계는 ‘부네’의 골방처럼 어둡고, 두려운 공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또한 두렵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과 함께 여성의 대표적 성장소설로 읽히는 이 작품은 여성성장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¹²⁾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자기동일성을 찾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여성 정체성을 찾는 대부분의 성장소설에서 나타난다. 정체성의 혼란은 아버지의 세계 안에서의 삶의 한계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여성성장소설의 여성주체들은 진정한 자아의 정체

12) 김경수, 「여성성장소설의 제의적 국면」,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고려원, 1994).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박이정, 2002).

성과는 거리가 있는 가부장제 사회안에서 주변적 인물로서의 자아정체성과 희생적 존재로서의 여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머물러 있다.¹³⁾

이것은 소설이라는 양식이 가지는 한계이다. 사회적 현실적 고려없이, 확고한 정체성의 전망을 그려내었을 때 작가는 관념적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고, 현실적인 문맥 속에서 전망이 불투명하면, 전망의 부재로 그 또한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기에 사회적 문맥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을 고려하는 총체적 전망보다는 개인의 좌절과 소망을 통해 이루어 낸 확고한 신념에 가득찬 삶을 전망으로 드러내는 자서전의 글쓰기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최근에 와서는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다.¹⁴⁾

3. 여성적 글쓰기로서의 자서전

여성으로서의 삶은 가부장적 의식을 내면화, 인내와 희생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간적인 투쟁의 삶을 사느냐이다. 인간적인 욕망을 체념한 채, 무장된 인내와 희생의 삶을 살지라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갈망과 욕망은 끊임없이 여성들의 삶을 불안과 초조 속으로 밀어 넣는다. 또 좀더 자기 확신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성이라 할 지라도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내는 블랙홀에서 정체성은 끊임없이 흔들린다.¹⁵⁾

알 수 없는 불안은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존재론적 상실감이나 결핍감에서 오기도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정체성

13) 최현주, 『한국현대 성장소설의 세계』(2002, 박이정.), p.119.

14) 2001년 교보문고 인터넷 광고에서 박서원의 『백년의 시간 속에 갇힌 여자』(중앙 M&B)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가 보였다. 몇 년 전부터 출판계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은 자전예세이가 올해도 연초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15) 정체성이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변화 안에 내재해 있는 동일한 전체 패턴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모든 변화 안에 스며들어 있는 독특한 양식으로서의 지속적인 '나'가 있다. 김열규 외, 『페미니즘과 문학』(문예출판사,1988). p.223.

을 새로 확립해야 한다. 라캉에 따르면 정체성은 나르시시즘적 자아이상과 재결합하려는 욕망이다. 여성들은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나르시시즘적 자아이상의 모델은 남성적 욕망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무의식적 욕망이 자기 동일시를 위해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잉여물인 남성적 욕망과 여성의 무의식적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끊임없는 흔들림은 어떤 형식으로도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 돌파구는 체념과 광기 두 극단으로 발전한다. 체념은 가부장적 세계의 대상을 수용할 때 가지는 것이며, 광기는 가부장적 세계를 이탈한 여성들의 무의식적 욕망의 폭발이다.¹⁶⁾

여성의 정체성은 자기 동일시를 이루려는 하나의 과정이며, 어머니로 혹은 아내로 안주하려는 현실적 욕망을 무의식적 욕망은 끊임없이 방해한다. 여성의 정체성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탐색된다. 어머니와의 동일시 혹은 어머니와의 결별을 통해서 드러난다.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공생관계를 열렬히 열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로부터 이탈을 통해 자유의 갈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문학 작품에서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어머니와의 애증관계는 바로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중적 태도 역시, 여성들의 정체성의 미결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어머니와의 자기 동일시는 여성의 모성성 혹은 허영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한편 어머니와의 분리는 여성성보다는 인간 개체로서의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강한 자기 부정은 어머

16) 이것을 크리스테바는 리비도적 충동들에 기원을 두고 있는 기호계와 아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들로 구성된 대상 세계를 향하게 될 때 가지는 언어의 한 측면으로 나타나는 상징계의 변증법적 관계를 설명하며, 기호계가 상징계를 이탈할 경우, 그 혁명적 잠재력은 무의미함이나 광기로 폭발해 버린다고 했다. 김열규 외, 위의 책, p.240.

니의 부정적 측면을 통해서 표출된다. 근대 여성문학에서 가장 못된 악역(惡役)은 억압적인 남성이 아니라 나쁜 엄마이다.¹⁷⁾ 이렇듯 여성들의 자기부정은 가부장적 의식의 지배담론 속에서 '무대밖에 존재하며 재현할 수 없고 자아를 소유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¹⁸⁾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는 삶의 표상모델은 자기부정으로 이어지고, 광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들의 자기 동일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 정체성은 의미체계(상징계) 내부에 있는 가부장적 의식을 분류해내는 작업이 우선이다. 또 하나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질서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의식은 인간과 세계, 자아와 타자, 자아와 자아 표현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상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주관적 직관은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 의식은 대상을 바라보지만, 이때의 대상은 의식과 구별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주관적 의식에 불과하다. 상상계에서 타자는 의식이 스스로 꾸며 낸 자신의 심상을 비추어보는 거울이 되고 대상은 종잡을 수 없는 불연속성에 굴복한다. 개별적인 주체와 독립적인 타자가 없는 곳에서 삶은 거울 속의 놀이, 자기 반사의 놀이가 된다. 타자와 대상들은 자기의 모습을 되비쳐 주는 거울이 될 뿐이다. 여성들에게 남성들이나 어머니들은 바로 자신의 다름 아니다.

상징계 내에서 남성들과 어머니들로부터 자신의 분리, 그것만이 여성들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길이다. 타자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길은 자신의 고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하고, 고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욕망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철저한 고발, 아니면 자기 내면의 고백을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성의 자서전적 글쓰기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글쓰기이다. 일기, 혹은 편지 등의 단편적 글쓰기는 자신의 내밀한 고백은 될지언정 자신이나 대

17) 김열규 외, 위의 책, p.231.

18) 김열규 외, 위의 책, p.197.

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서전은 자신이 살아 온 과거의 삶,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추동하는 힘, 혹은 자기의 삶에 저해되는 요인까지도 분석,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신 이야기라는 점에서 권고되어야 할 여성들의 글쓰기 양식이다.

자서전은 양식의 특징상 글쓰는 '나'와 글을 읽는 독자가 미분화, 서로 상호침투를 목적으로 한다. 자서전을 쓰는 작가는 자신만의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심정으로 글을 쓰지만, 읽는 독자는 '나처럼 힘들게 산 사람이 또 있네' 혹은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네'라는 심정으로 책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어떤 양식의 글보다 감정이입이 강하다. 또 독자는 그런 감정이입을 통해서 생의 동지애를 얻은 기분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 주체로서의 작가가 객체로서의 독자와 서로 이반하면서 유착, 공모의 관계를 가진다. 누구도 가부장적 억압에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들은 '홀로, 따로' 혹은 '왕따'의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 동지애를 갈구하기 때문에 자서전은 글을 쓰는 작가나 글을 읽는 독자나 어떤 여성에게든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글쓰기 양식이다.

1) 고백을 통한 자기 정화

여성들의 가부장적 제도에 의한 억압은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왔고, 인내와 희생으로 견뎌내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여성들은 혼자만의 각고와 인내로 가부장적 억압을 견뎌왔다. 가부장적 억압은 다른 사회 조직에서는 좀 더 엄밀히, 내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조직의 구조에 대한 확연한 분석이 따르지 않으면, 가부장적 억압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언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분명한 조직 내에 가부장적 억압을 읽어내기 힘들다. 그러나 혈연이라는 구실로 가부장적 억압을 자행하는 가정에서의 인간 왜곡현상은 여성들의 삶 자체를 위협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떠벌리는 사람을 '누워서 침뱉기'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자기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금기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으로 일어난 인간 왜곡현상은 더더욱이나 '말하여 질 것'이 아니라 인내와 희생으로 '견뎌내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해, 시집식구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귀먹어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겪는 모든 것은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지만, 누구와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들은 혼자 말하기, 냇두리에 익숙하고, 그 냇두리는 과거 자기 이야기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주절주절 일상의 쇄사(鎖辭)까지도 늘어놓는다. 여성들의 냇두리는 애초부터 타자와의 소통보다는 자신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고백체의 글, 일기, 자서전, 편지 등의 사적인 양식이 여성들의 글쓰기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그들은 스러져가는 혼을 감지하며, 죽지 않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죽기 전에 한마디라도 남기기 위해 써야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이 미치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다.

여성들의 자신과의 소통은 가부장적 억압에서 오는 고통과 숨막힘을 풀어내기 위한 자신만의 새로운 힘의 축적, 혹은 숨트기이다. 여성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이 자신만이 겪는 특별한 고통으로 생각, 누구에게 이야기되어 질 보편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그 자기만이 겪는 고통을 자신만의 양식으로 풀어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헛' 병으로 평생 생명을 짊어지고 살거나, 미쳐 죽어야만 한다. 오정희 작품에서 드러나는 섬뜩한 정도의 여성적 광기는 바로 이런 현실의 반영이다.

오정희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적 광기는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이 사회의 합리적인 소통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여성들의 심리적 반영으

로 드러나는 광기이다. 오정희 외의 다른 여성작가들의 작품에도 부분적으로 여성의 광기가 드러난다.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이나, 최명희의 『혼불』, 또 최근작 전경린의 『아주 특별한 하루』에서도 가부장적 억압으로 합리적 소통체계를 찾지 못해 미쳐 세상을 떠돌다 혹은 감금되어 있다 죽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

이런 여성들의 광기는 이번 여성 자서전을 훑어보면서 더욱 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필자에게 다가왔다. 이번에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대상으로 한 자서전, 『백년의 시간 속에 갇힌 여자』(박서원, 중앙 M&B), 『나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다』(이점자, 중앙 M&B)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김성주, M&B) 『고맙다 내 인생아』(최영신, 조선일보사) 『몸의 생』(함신미, 이야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서진규, 북하우스) 『나도 세상에 태어난 값은 하고싶다』(고명인, 명진)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거야, 1,2』(현경, 열림원) 『우리는 특급열차를 타러간다』(윤정모, 눈과 귀) 등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현실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열악,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자서전을 쓴 이들 대부분은 대체로 경제적인, 또 교육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들이 입지전적인 인생의 역정을 거쳐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낸 자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의 아버지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 받는 차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채 내팽개치다시피 밑바닥 생으로 하락, 오직 인간으로 살고 싶을 열망 하나로 새로운 삶을 시작,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 중에서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사회의 가부장적 힘에 완강하게 부딪쳐 자신의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새로운 전문가의 삶을 시작한 차병원 의사인 고명인이나, 이화여대 교수였다가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미국 유니언 신학대학 종신교수인 현경의 삶은 한국에서 사회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한 투쟁적 삶인가를 확인시켜 준 자서전이였다.

여성들의 자의식은 가부장적 체계의 억압으로 생겨난다. 가족 안에서의 가부장적 억압은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자행된다. 우리나라의 혈통중심 가족주의는 이미 대부분의 고아가 해외입양으로 수출되는 현상을 통하여 많이 지적되어 왔다. 혈통중심 가족주의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패권주의화 하는데 일조해왔다.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만연된 패권주의를 양산, 사회 전체 시스템을 권위주의의 체제화 하는데 공헌했다. 이 체제 내에서는 합리적인 소통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인내와 순응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치거나 추방당해야 한다.

『고맙다 내 인생아』의 최영신, 『우리는 특급열차를 타고 간다』의 윤정모, 『몸의 생』의 함신미, 『백년의 시간 속에 갇힌 여자』의 박서원, 『몸서리치도록 지독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구박으로 자신의 삶을 내팽개친 자들이다. 이들은 글쓰기를 통해서 비로서 자신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인내와 순응의 미학으로 살아온 타자의 삶에서, 자신의 욕망, 리비도적 충동에 스스로 몸을 맡김으로써 자신과 하나되는 경험을 통해서 혼란, 크리스테바가 지적한 코라의 영역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통에 의한 리비도적 충동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한 이후, 무수한 욕망으로 뒤틀린 작가는 그 욕망에서 놓여나고, 자신은 빈공간으로 남게 된다. 결국 고백을 통한 자기정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자신은 열려 있게 된다.

여성 자서전의 대부분은 가족 속에서의 혼란, 탈출 시도, 성폭행 당함, 또 다른 가족 만들기(결혼), 또 다시 가족 떠나기, 자기 세우기의 과정을 보여 준다. 가족 떠나기는 실제로 가족을 떠나기도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박서원의 고백은 가족과의 관계 고백이다. 여덟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열여덟에 성폭행, 스물 두 살에 희귀 신경증인 기면증에 걸리고, 어머니와

두 남동생으로부터 몇번의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을 당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상처를 글쓰기를 통해서 극복한 박서원의 삶에서 가족은 바로 악몽과 같은 것이다.

『백년의 시간 속에 갇힌 여자』에서 박서원의 엄마는 기생의 딸이었다는 과거와 서른 두 살에 청상과부가 되었다는 상처로, 또 자신의 삶을 아들들에게 의탁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딸 박서원의 삶조차도 황폐화시키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의식이 내면화된 이중적인 과도기적 여성이다. 아들들에게는 한없는 희생과 사랑을, 딸에게는 알수 없는 권위와 자기 경멸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박서원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악몽을 꾸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악몽을 꾸지 않는다. 박서원에겐 가족은 바로 악몽인 것이다.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건 마른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온 집안 식구가 푹푹 뭉쳐 나를 내동댕이치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악몽은 아닌지, 머리를 흔들고 정신을 차려봐도 현실은 그대로였다.¹⁹⁾

어머니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쫓김을 수없이 당하는 박서원에게 글쓰기는 현실을 이겨내는 돌파구 같은 것이다.

그 즈음 나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꿈이란 보편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재현'이다. 자전 에세이를 쓰면서 과거의 상처를 도려냈기 때문인지, 그 해 들어서 나쁜 꿈을 별로 꾸지 않게 되었다.²⁰⁾

박서원은 자서전 글쓰기를 통해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 자신 세우기를 함으로써, 가족의 폭력, 그로 인한 공포, 자신의 절망감으로부터 해방될

19) 박서원, 『백년의 시간 속에 갇힌 여자』(중앙 M&B, 2001.), p.93.

20) 박서원, 위의 책, p.173.

수 있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고맙다 내인생아』의 최영신 역시 박서원과 삶의 구도 역시 다를 바 없다. 가족과의 관계 구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 그로 인한 방황이 주요 고백을 이루고 있다.

2000년도에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자인 최영신 역시 어머니의 구박은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복형제까지 합해 형제가 16명을 둔 어머니는 힘든 것을 견디다 못해 술만 마시고, 한풀이를 딸구박 하는 것으로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었지만, 중학교에는 보내지 않고 죽어라 집에서 일만시켰다. 열여섯 살에 가출해 노점상, 택시회사 조수, 떡볶이 장사 등 갖은 고생, 성폭행까지 당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남편의 폭력은 또 그녀의 인생을 위협했다. 최영신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가는 인생을 50년 동안 살아왔다.

이렇게 여성들의 삶은 지뢰밭을 걷는 삶이다. 하나의 지뢰가 터지면 다음 지뢰밭이 터질까봐 노심초사 불안한. 최영신 역시 글쓰기가 아니었으면, 삶을 버티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라 말한다.

글쓰기는 밑바닥에서 질척거리는 내 영혼을 깨웠다. 육신이야 어느 곳에 걸쳐 있든 영혼만큼은 바닥을 딛지 않으려고 애썼다. 글쓰기는 내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²¹⁾

그동안 어머니의 미덕으로 모성과 희생을 말해왔다. 이것은 어머니들의 아들에 관한 한 진리이다. 그러나 딸들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자서전을 통해서 재삼 확인되었다. 어머니들은 자신이 받은 고통과 억울함

21) 최영신, 『내 인생아 고맙다』(조선일보사, 2001.), p.137.

과 분노를 딸들에게, 혹은 며느리에게 대물림함으로써,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은 무의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어머니들의 자의식의 미발달로 전오이디프스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딸이나 며느리를 동등한 개체의 인간으로보다는 자아의 확장개념으로 자신과 분리되지 않은 또 하나의 자신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서전은 자신이 살아 온 일생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처음에 자서전을 시작하는 작가에게 그 삶은 고통과 분노에 가득한 삶이었다 하더라도, 자서전을 기술하는 동안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감정이 정화되면서, 차츰 삶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삶을 대상화하는데 성공하는 것이다. 즉 자신만의 억울하고 고통스런 삶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사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과 분노로 가득찼던 가슴은 텅비게 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미래에의 열망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2) 가부장적 세계로부터의 분리, 자신 세우기

여성들에게 가부장적 억압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가족전체, 사회조직, 혹은 한국의 총체적인 현실 등, 그 대상은 다양하다. 대부분의 자서전을 쓴 여성들은 억압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대성그룹의 딸로서 얼마든지, 혜택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의 저자 김성주는 한국의 가부장적 체제로부터 오는 경직된 현실을 떠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세계 기업인과 나란히 하는 굴지 패션 유통업체의 기업인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가슴이 시키는대로 살고 싶다』의 이점자 역시, 마산 한일 합섬 직공으로 일약 성악계에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으로부터, 한국이라는 경직된 사회로부터 탈출, 오스트리아 유학길에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의 서진규 역시, 가발공장 직원으로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 열린 세계에서의 체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대에서 소령으로 성공, 하버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여성들의 가부장적 체제로부터 자신 분리하기와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 세워나간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서의 올바른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전범이 될 수 있는 삶은 바로 자신의 삶이다. 할머니나 어머니, 더더구나 아버지는 여성들의 삶의 전범이 될 수 없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만이 텍스트다. 자신의 삶을 모델로 끊임없이 수정하고, 창조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성 자서전에서도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텍스트로 수정, 탐구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자서전 형식의 전범을 제공한 현경의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거야 1,2』를 보자.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가치는 남성적 가치와 동일시되며, 남성의 남근중심적 나르시즘을 강화시킨다.²²⁾ 이것은 여성들의 성정체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방황한다. 자기 자신을 욕망하는 여성들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서의 '나'가 아닌 자기 환상을 통한 '나' 그리고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많은 여성작가들이나 독자들은 공상과학소설, 초현실주의, 언어적 실험 같은 비사실주의적인 형식들에 관심이 많다.

현경은 자기 환상을 통한 '나'를 '그녀'로 표현하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사실보다 더 '진짜(real)인 진실인이라고 말한다.²³⁾ 현경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 참자아를 찾아 떠난 '발칙한 넌'의 순례기이다. 원래는

22) 김열규 외, 위의 책, p.113.

23) 현경,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거야 1』(열림원, 2002.), p.9.

발칙한 여자가 아니었지만,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 무엇에 의해서도 식민화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보니 ‘발칙한 녀’이 되었고, 그 발칙한 녀까지 사랑하는 우주의 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이 책은 ‘그녀’의 땀에 물려 씌어진 것이다.²⁴⁾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은 ‘발칙한 녀’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참자아를 찾아 떠나는 순례기를 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내밀한 자신만의 방에서 벗어나 세상이라는 양지에 ‘알몸’으로 부끄럼없이 나와야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경은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그 무엇에 대해서도 식민화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보니’ ‘그녀’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녀’는 우주의 사랑의 대변자임을 고백하고 있다.

현경의 자서전 글쓰기는 실제 살아 숨쉬고 있는 자신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겪게 되는 좌절과 그 좌절 속에서 ‘그녀’를 만나 ‘살맛’을 찾아가는 이야기, 두 언술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여성들의 자서전에서는 가족과의 갈등이 주요 언술행위로 드러나는데 비해 현경의 자서전은 영혼의 순례기, 그녀다움을 잃게 하는 현실과 그녀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자아인 ‘그녀’와의 대화가 주요 언술 행위이다. 그녀의 가족과의 관계는 몇줄로 요약되는데 비해, 영혼의 만남을 이루는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많은 페이지를 활애하고 있다.

‘그녀’와의 대화 부분은 그녀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의식을 대화를 통해서 분석해내고, 자신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장치이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가장 ‘그녀다움’을 찾아가는 순례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서전의 실제 이야기의 대부분은 대학생활 이후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이화여대의 재학동안은 이화여대라는 모교가 준 자신감 때문에 몸과 마음

24) 현경, 위의 책. p.15.

의 느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 느낌에 분열이 없는 일체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 일체감은 유학 시절이나 학자가 되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교수가 되어 돌아 온 모교는 더 이상 그녀의 옛 보금자리가 아니었고, 일체감과 당당함, 그녀의 기, 그녀의 생명력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즉 가부장적 문화의 온상지였다. 인생을 신명나게 살고 싶었던 그녀는 '철뿔' '기죽음' '좋은' '착함'에 익숙한 고대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교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 시점에, 세계에서 제일 진보적인 유니온 신학대학의 종신교수로의 제의를 받고 또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처음 '그녀'와의 대화가 '배부른 돼지'로 시작된 화두는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그냥 평면적이고 편안한, 남들이 인정해주는 여자의 삶보다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가기로 했고 뉴욕으로 떠났다. 뉴욕은 예술적 화려함이나, 최첨단 고층빌딩의 화려함보다, 할렘가의 흑인들, 여름에도 까만 코트에 까만 중절모를 쓰고 다니던 정통 유태인, 거리마다 넘실대는 거지들, 버리에 온갖 속의 물을 들인 핑크족들, 모든 다른 것을 어우를 수 있는 그 문화적인 힘, 그 갈망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었다. 그녀는 뉴욕에서 가장 그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경의 자서전 글쓰기는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일차적인 가족 분리를 통해 자신으로 온전히 돌아 올 수 있었다. 현경이 그렇게 빨리 한국 사람들의 혈통 가족주의를 벗어 날 수 있었던 것은 이화여대 다닐 때의 학교 엄마로 지칭되는 장원교수로부터의 사랑 때문이었다. 제자에 대한 자애는 현경을 감동시켰고, 그것은 가족주의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가부장적 의식의 피해자인 무당인 낱아준 엄마를 만났을 때도 원망이나 슬픔보다는 같은 여자로서의 사랑으로 감싸 않을 수 있었다. 길러 준 엄마, 낱아 준 엄마, 학교 엄마, 세명의 엄마의 성과 아버지의 성까지 다 붙일 수 없기에 현경으로 부르기로 한, 현경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의식의 가

장 큰 피해자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를 통해 자기를 찾은 당당함 때문이었다.

현경의 자서전은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영혼의 순례기와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서전이 가지는 단선적이고 주관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자서전 글쓰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려는 충동으로 시작하지만, 존재 자체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숨기려는 욕망이 또 다른 대치점에 있는 것이다. 말하려는 진실을 거꾸로 뒤집으므로, 진실 뒤의 또 다른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녀’와의 대화는 현경에게 끊임없이 ‘솔직하라 혹은 ‘그녀다움’을 부추기므로서 좀더 풍부한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4. 미적 인식과 체험 인식

여성들의 글쓰기는 조건지어진 가부장적 사회로부터의 탈출과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심리적 탐색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대상을 지배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떠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생존의 미학이다. 자전적 소설과 자서전은 생존의 미학을 보여주는 글쓰기 양식이다.

자전적 소설은 소설이 가지는 특징상, 복합성의 시학이다. 정서적 반응을 기대하는 독자들과의 교감을 위해서는 일관된 느낌이 주조를 이루어야 한다. 작품 속에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자기 실현 의지는 작품의 한 부분일 뿐 작품의 전체적인 예술행위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인물의 개성의 발현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작품의 갈등도,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맥 속에서 조명된다. 그러기에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작품의 미적 인식을 통해서 실현된다. 「유년의 뜰」에서의 정체성의 혼란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불안이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와 아버

지라는 관계의 역학에서 오는 불안으로 나타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식탐으로 드러난다.

미적 인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전적 소설에서 '나'는 현실적인 '나'와 유사성은 피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자기 존재의 잠재태들로 나타난다. 그 잠재태들을 시험하면서, 모든 자기 실존가능성을 시험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기웃거리지만, 동시에 자신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동시에 가진다. 미적 양식을 통해 모든 복합성의 가능성을 탐험한다. 미적 양식을 통해 자전적 자아에 빠져들지 않고 자신의 잠재태인 '나'에 탐닉하기도 한다. 이렇게 복합성의 시학을 드러내는 작품은 자기 과잉과 자기 비판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총체적인 자아의 상을 되찾게 된다. 그래서 단일성을 가지고 자아의 실현을 위해 심도 있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미래의 자아상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서전에서는 작가와 화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작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이야기는 그의 일생을 모두 다 감싸안아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실현에 도달해야 한다. 자서전에서는 자전적 소설이 총체적 미적 반응이듯이, 삶의 총체적 반응으로 드러나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체험의 의미를 밝혀내어야 한다. 과거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체험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밝혀내어야 하고, 미래의 가능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이 가지는 단일성 속에 반복되는 체험은 반복 그 자체가 가지는 인생의 의미를 자기 실현의 관계 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단일성 속의 반복은 굴곡을 필요로 하고 자서전의 텍스트인 작가의 삶은 굴곡 있는 삶을 요할 수밖에 없다. 자서전을 읽는 독자 역시 불행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텍스트를 요구한다. 특히 여성자서전의 경우, 파란만장한 삶은 파란만장함에 따르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일테면, 가족의 억압, 탈출, 성폭행, 불행한 결혼, 남편의 폭력, 다시 탈출, 반복적인 불행을 통한 반복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 어떤 형식의 글이든 글쓰기, 가족, 혹은 사회와의 단절.

자기 세우기, 자기 실현 등, 이런 일련의 시련은 자기 고백을 통하여 심리적 정화과정에 이르고, 모든 자기를 비운 상태에서 새로운 미래에의 가능성을 향해 발돋움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정체성 확립은 지금 우리 여성들에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자서전의 판매부수에서 확인된다. 여성 소설보다는 여성 자서전이 훨씬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뚜렷한 신분 상승을 보여주는 마산 공단의 여직공이었다 성악가 교수, 또 프리마돈나가 되어 나타난 이점자의 자서전이나, 가발공장의 공원이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하버드의 박사과정에 있는 서진규의 자서전은 25만부나 팔렸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적 실현이나 자기 정체성을 위한 향진에 얼마나 목마르고 있나를 보여준다. 또 자서전이 가지는 단일성의 시학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자아인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고백과 자기의 고백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의 고찰을 통해 균형감각을 유지한 현경의 자서전은 여성자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자서전이었다.

■ 필자 : 평택대 교수

Abstract

Biographical Writing as a Feminine Perspective

Lee, Duk -hwa

Living as a woman is a matter of a life of perseverance and sacrifice according to patriarchal customs or that of struggle to development of self as an individual. Disregarding self-recognition, even with a life of endurance and sacrifice, relentless desire and conflict in real life lead women into confusion and insecurity. Women who have strong self-awareness also struggle endlessly in a Black-hole of patriarchal society. If we say womens writing is a venture for finding a refugee from the society and true self, it is an effort to understand self rather than to control or surpass the others. This is, therefore, the aesthetics of subsistence.

In real life, only detachment of self from men and maternal guidance is a way to look to the interests of women, themselves. In order to detach self from others, she needs to find her own voice and to find her own voice she should be able to read desires hidden inside herself. And her self-identity can only be found through revealing herself to other women, or confessing her internal matters. Here, a style of a biographical writing is required.

Biographical writing as a woman is a writing that covers all these matters. Even though a diary or letters can be a simple writing of individual self-confession, they dont really reach the overall recognition

of self and others. On the contrary, a biographical writing not only can reach the overall self-awareness through dealing with the life past as a whole but also suggests a perspective for the future life and, therefore, ought to be recommended.